



2022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아세안 권역

## 세 개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나라, 말레이시아

서승우

저희 부부는 말레이시아 페낭에 살고 있습니다. 여행도 아니고, 취업도 아닌 남편의 식사과정을 위해 함께 1년 동안 지낼 예정이에요. 꽤 많은 국가를 여행했는데, 말레이시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동남아 국가’의 이미지와 실제 모습은 상당히 다르더군요.



구인 공고도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주로 택시로 이동을 했는데, 택시 기사들이 하시는 말쑼이, 말레이시아 거주민들은 자라면서 3개의 언어를 다 배운다고 합니다. 영어,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가 공용어처럼 쓰이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중국어도 사용 비율이 높은 줄은 잘 몰랐습니다. 다양한 인종 만큼이나 언어도, 문화도 다양한 이곳. 저희가 있는 이 말레이시아, 지금부터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말레이시아는 과거 영국 식민지 경험을 가진 말레이 왕국에서 시작되어 말라야 연합, 말라야 연방 등을 거쳐 지금의 말레이시아가 되었습니다. 현재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와 육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와 해상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연방 국가여서, 각 연방마다 성격이 다른 부분도 많고, 연방 중간 중간에 다른 나라가 끼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래 말라야 연방 중 한 축이었던 싱가포르나, 석유와 천연가스로 유명한 브루나이가 그런 경우인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서말, 동말로 나눠 부르기도 합니다. 서말은 서쪽 말레이시아를 뜻하고, 싱가포르 왼쪽 부분에 있는 지역을 뜻하는데요, 수도 쿠알라 룸푸르나 연방 정부가 있는 푸트르자야 모두 서말에 있습니다. 동말은 싱가포르 기준으로 동쪽에 있으며, 사라왁, 사바 지역이 이 쪽에 해당됩니다. 동말에 유명한 관광지로 코타키나발루가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여러 국가들이 연합되어 설립된 나라여서,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말레이, 중국 그리고 인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교는 이슬람교를 따르지만, 다른 종교들 역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입니다.



육로를 통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오갈 땐, 이런 국경을 지납니다

덕분에, 세 민족, 여러 종교가 어우러진 말레이시아는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이슬람교가 가장 많은 만큼 도시 곳곳에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있고, 이슬람교와 역사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기독교의 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재밌는 점은, 말레이 인종들은 가정에서 말레이어를 사용하고, 중국 인종들은 중국어를, 인도는 타밀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종 간 소통을 위해서 영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관공서나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할 때, 말레이어로 작성하고 밑에 영어로 다시 써 놓거나, 애초에 두 가지 언어로 된 문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덕분에 말레이시아에서는 영어 만으로도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중심부가 아니면 영어 소통이 안 되는 곳도 많은 베트남과 많이 다른 문화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말레이시아 인구 중 말레이 인종, 그리고 이슬람교의 비율이 가장 높다 보니, 정부 정책이나 전반적인 문화가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주류에 대한 과세 규정이나 문화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물가에 비해서 주류 가격이 매우 비싼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 중에서는 물가가 비싼 편에 속하지만 10% 내외의 차이인 반면에, 주류의 가격은 2배~3배 혹은 그보다도 더 비싼 편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도 말레이시아가 더 비싼 편이니, 정말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음주를 금하고, 주류의 제조조차 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에서도 음주 및 주류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말레이시아는 타 이슬람 문화권 국가에 비해서는 주류에 관대한 편이지만, 주류의 가격만큼은 관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사실은 말레이시아 관광지 중 한 곳인 랑카위 섬은 전체가 면세 지역이라, 주류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 면세이고,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조건부 면세이지만, 중요한 점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주류가 가장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로 들어가는 것을 ‘입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저희는 최종목적지인 폐낭까지 조금 특이한 경로로 입말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로 가는데 싱가포르로 들어가는 게 조금 이상하지만, 싱가포르

에서 육로로 입말 하는 것이 비행기를 타고 쿠알라룸푸르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했습니다.

저희는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조호바루까지 육로로 입국 후, 조호바루에서 페낭까지 비행기로 이동했습니다. 페낭으로 비행기를 타지 않았던 이유는 비용 때문인데, 위탁 수화물까지 모두 포함하게 되면, 옆 도시 조호바루에서 가는 것보다 총 10만원 이상 더 비쌌기 때문입니다. 창이 공항에서 조호바루까지는 국경 통과시간 제외하고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비용차이는 매우 크기 때문이죠. 물론, 조호바루까지 가는 육로 이동 업체 비용이 제법 비싸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페낭이라는 도시는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부유한 편에 속합니다. 역사적 문화지로 인해 관광지의 역할과 행정적인 측면에서 플라우 피낭 주의 주도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그 중 조지타운이라는 지명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곳은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세워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조지타운이라는 이름 자체가 영국의 조지4세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고 하는데,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8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는 더운 날씨 때문에 복합쇼핑몰이 굉장히 많은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쿠알라룸푸르 다음으로 페낭 섬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한 지역에 쇼핑몰이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섬 동부, 북부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어느 지역에 살던 대형 쇼핑몰에 방문하기에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말레이시아 쇼핑몰은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명품 매장부터, 생필품, 식당, 카페 등 필요하고 유용한 시설들이 고루 위치해 있어서, 쇼핑몰 근처에 살 수 있다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만의 문화라고 한다면, ‘그랩(Grab)’이란 업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와 배달의 민족처럼, 택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건, 더운 날씨와 육로로 이동하기 어려운 환경 그리고 기존 택시들에 대한 불편함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지타운의 풍경. 조지타운은 그 역사적 가치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페낭의 중심 지역으로 경제적 중심지이기도 하며, 관광지의 역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택시와 같은 택시 어플리케이션이 도입되기 전에 승차에 관한 문제나 비용에 관한 논란이 많았는데, 이와 유사한 이유로 동남아 지역에서도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그랩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페낭 내에서 버스로 이동 중인 모습.  
도로에 인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간다면, 다른 동남아 지역에 비해 식문화는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세 민족이 어우러진 국가이기에 더욱 다양한 식문화가 발달해 있으며, 향신료 맛이 강한 주변 국가들에 비해 맛이 조금 더 순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말레이시아 내에서 일식, 한식 등 상대적으로 친밀한 맛들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여행에서 음식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발전한 신흥국으로도 꼽히는데, 그에 맞게 치안도 준수한 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안전하다고 말하긴 어

렵지만, 위험한 일부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밤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지 않는 등의 기본적인 사항만 잘 지킨다면, 충분히 안전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과 해상 경계를 접하고 있는 사바 지역 인근은 외교부에서도 ‘출국권고’ 지역으로 정하고 있으니,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밤 늦게 어두운 골목길이나 인적이 드문 지역을 다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유럽, 호주, 동남아 등 여러 지역을 다녔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치안이 좋지 않다고 느낄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조호바루 KSL 인근 야시장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그 개성이 뚜렷한 국가입니다. 여러 인종이 같이 거주하며, 이슬람 문화권이지만 개방적인 국가입니다. 영어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고, 저렴한 물가 덕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3개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나라, 말레이시아. 다른 동남아 여행과는 또 다른 신선한 경험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